

나의 책 나의 학문

이승욱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I.

사람은 숨을 쉬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목숨이라 하고, 죽는 것을 숨진다고 한다. 이처럼 생명과 숨을 하나로 생각할 뿐, 어떤 대상으로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 한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생존조건이 있다. 마음의 안과 밖을 순환, 소통하는 데 말로써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곧 마음의 삶이다. 이 때도 우리는 그 말을 객관적 대상으로 의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말을 대상으로 의식하고 그것을 공부하기로 한 것은 전혀 예정되었던 선택이 아니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간 것부터가 우연이었고, 그에 못지 않게 국문과를 지망하게 된 것도 참으로 뜻밖의 선택이었다. 6·25의 난리 통에 고등학교 3학년을 허송했고 그 이듬해인 1951년 여름 무렵 대학입학시험이 있었다. 그 복세통에 입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막상 지망학과를 쓰려고 하니 고르고 가릴 안목도 없어 얼떨결에 결정한 일이고 보면 우연이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밑바닥에는 羅孫 金東旭선생과의 만남이 있다. 시골 고등학교에서 羅孫의 문하가 되었고, 선생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의 중심에 '미륵선생'(학생들 사이에서 부르던 별명)으로 다가 서 있었으니, 따지고 보면 온전한 우연은 아닌 성싶다. 아무튼 허술하고 미련하게 선택한 전공의 길이었지만, 한 번도 그것을 탓해 본 적이 없으며, 그렇다고 잘했다고 내세우는 일도 없이 그저 숙명이려니 받아들이어 왔다.

입시는 수원 농과대학의 마루바닥에 엎드려 치렀다. 그때 거기는 쉴 새없이 전선으로 출격하는 이른바 제트기의 폭음이 천지를 찢는 한가운데였다. 그러저럭 그 해 가을 대전전시연합대학에 가 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학의 울안에 들어섰다. 그 이듬해에는 부산 대신동의 문리대 가교사를 드나들었고, 1953년 가을 마침내 수복한 서울 동숭동 교사에 와서 55년 졸업 때까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을 여기서 지냈으니, 그간의 정황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얽힌 피난살이 별거숭이였다. 그래도 동숭동 시절은 안정된 상황에서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고, 대학과 학문, 특히 국어학의 세계가 어떠한 경지인지를 어렵פות이나마 알게 된 시기다.

공부하는 사람이 학창시절에 세 가지 복을 누릴 수 있으면 더 없는 행복이라고 했다. 어진 스승과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책과의 만남을 두고 한 말인데, 나는 여러 가지로 힘겹고 어수선한 속에서도 분에 넘치는 이 세 가지 복을 두루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 준 행운이지 내 힘으로 어쩔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벌써 대전 시절에 心岳 李崇寧선생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산에서 一石 李熙昇선생 그리고 一簣 方鍾鉉선생의 訥咳에 접하여 문하의 울안에 들었으니, 첫째로 큰 스승을 얻은 복이었고, 한편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일이나 세상 사는 일을 부추겨 도와주는 선배, 친구를 만난 것은 이 시절에 얻은 둘째가는 복이었다. 心岳선생의 음운론과 국어사, 一石선생의 국어학개론과 문법론 그리고 一簣선생의 방언학을 두루 거치면서 국어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비록 분야와 대상은 달랐지만 세 분의 언어관을 비롯하여 말의 본질과 현상을 과학으로 푸는 기본원리나 방법은 같다는 사실도 알 만했다. 그 이론의 원류는 현대언어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 1857~1913)가 그의 유일한 기념비적 저술인 『일반언어학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6)에서 펼쳐 보인 구조주의 사유체계의 원리였다. 그것은 비단 언어영역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광범위한 사상체계에 두루 걸치는 기저원리가 되기도 하여 새로운 학풍을 진작시키는 불씨가 되었으니, 당시로는 누구도 소쉬르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또한 투르베츠크이(N. S. Trubetskoy : 1890~1938)가 음운론의 기본원리로 ‘체계’와 ‘대립’의 개념을 정립한 것은 20세기 전반기 언어 연구가 거둔 큰 성과이거니와, 그것은 비단 음운론에만 국한하는 원리가 아니라, 구조관계에 있는 모든 대상에 유효하다는 생각에서 형태소 기술이나 그 체계를 엮는 데 이 원리를 끌어드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원리를 알게 된 것도 학부와 대학원 때다.

修學期에 겪은 일 가운데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 1955년 8월에 一石 선생의 『國語學概說』(民衆書館)이 나온다. 선생께서 親署한 책을 펼쳐 서문을 다 읽어갔을 무렵 내 이름 석자가 크게 다가왔다. 너무나 뜻밖이고 분에 넘쳐 어쩔 줄을 몰랐다. 어떻게 내 이름이 그 열에 낄 수 있겠는가 싶어 질린 것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에 식은땀이 땀다. 그러니까 1954년 가을(4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이듬해 늦은 봄까지 나는 선생덕을 드나들면서 한창 진행중인 『國語學概說』의 출판과 인연을 맺게 되고, 어설피게나마 심부름을 하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인 나는 염치없게도 당시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큰 보수(?)까지 받은 것은 무엇으로도 갚지 못할 빛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을 하면서 一石國語學의 깊은 경지를 살살이 살피는 것으로 내 공부의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한 힘이었으니, 그 값은 세상의 셈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도 서문 속에 이름이 올라오니 놀라고 질릴 것은 당연했다.

II.

이런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나는 문법론, 특히 형태론에 관심이 쏠렸고, 학부의 졸업논문도 그런 바탕에서 쓰게 된 「所有格 接尾辭에 대한 연구」

(1955)였다. 비록 대상은 하나의 格接尾辭였지만 밝히려고 한 것은 이른바 조사라는 것들의 형태론적인 資質論이었다. 이들 문법요소들은 일반적인 단어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虛辭이며, 품사론의 범주 단위가 될 수 없는 점을 밝혔고, 마침내는 명사도 굴절한다는 曲用論을 체계화하는 데 귀결됐다. 한편으로는 소유격 접미사의 어원 추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이/의}계와 {-스}계의 대립자질을 밝히는 문제 등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활자화된 논문으로는 「국어의 postposition에 대하여 -그 品詞設定에 대한 試攷」(1956)가 최초의 것이다. 이것은 그 시기나 대상 선정으로 보아 앞의 졸업 논문과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조사 가운데 격조사는 접미사적 자질이 뚜렷하여 그것을 굴절형태소로 규정하는 데 무난하나, 특수조사는 형태·의미론적으로 나타나는 자질이 이들과 크게 달라 그렇지가 못하다. 그러므로 이 두 집합의 문법 요소를 같은 형태 범주, 다시 말해서 모두를 조사든, 접미사든, 어느 한 쪽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격접미사와 특수조사가 형태론적으로 같은 층위의 형태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특수조사의 의미자질은 불완전하나마 아직도 단어적 의미를 보존하고 있는 사실을 어휘의 文法化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轉移現象으로 풀었다. 그러면서 일부 특수조사의 어원형을 중세국어 자료에서 찾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일은 그 자체가 뜻이 있지만 나의 호기심은 그것을 넘어서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구석을 기웃거리게 했다. 그 당시는 보잘것없는 실험적인 생각이었지만 뒤에 와 보니 내가 문법사, 특히 형태사 분야에 손을 대게 된 시동은 벌써 이 호기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알겠다. 그런 이유에서 이 논문이 나에게서 다른 뜻이 있다. 그 가운데 용어상의 혼선을 막으려고 조사라는 말을 굳이 피한 것은 타당하나, 생소하게도 postposition을 그대로 빌려 쓴 것은 잘못이었다.

1958년에 「국어의 時制研究 -時制表示의 Konverbium 形成을 중심으로 하여」(1958 : 油印本)를 석사논문으로 썼다. 시제는 자연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임의로 정한 기준시의 앞과 뒤를 대립으로 구분하는 문법의 시간체제다. 그것은 반드시 형태의 표지를 획득해야만 문법이 된다. 나는 그 체계를 전통

문법의 3분법, 즉 과거, 현재, 미래로 하는 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형태의 표지가 되는 선어말어미들의 형태론적 특질을 역사적으로 밝히려 했다.

시제의 대립개념은 경험세계에서 자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의 시제는 다른 어떤 언어와도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런 개념형성은 곧바로 형태론적인 표지를 요구하게 되는 문법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시제표시의 선어말어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더듬어 올라갔다. 副題의 'konverbum형성'이라는 것도 이러한 뜻을 담은 것이며, 그것은 바로 '-았/었-'이 과거개념을 가진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형태가 '-아/어 ~잇- > -앓/앓-'과 같은 副動詞構成에 연유하는 文法化의 결과라는 것을 드러낸 말이다.

아무튼 이 논의는 뒷날 국어형태사의 큰 줄기가 되는 어휘범주의 文法化 문제에 이어져 갔다. 시제론은 그 본체는 물론이고 관련하는 모든 것들을 집대성하면 그것만으로도 완결성이 있는 대상인데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다만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1973)에 와서 문법의 전체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범주의 체계로 다루었을 뿐이다. 얼마간의 수정과 보완을 덧붙이기는 했으나, 전체 틀을 다시 생각한 엉뚱한 일탈의 몸짓을 피하지는 못했으니, 그것이 지금까지도 미련으로 남는다.

III.

1958년 공주사범대학에서 시작한 대학생생활은 60년대, 그러니까 나의 30대를 단국대학에서 고스란히 보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60년대 초부터 원치도 않은 일이 가로막고 나섰으니 소위 행정보직에 맡겨들기 시작하여 내내 시달리면서 허송한 30대가 되고 만 일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거는 그거고, 공부하는 공부대로 잘들 하지만 나는 그럴 주체가 못 되었다. 그렇지만 그리 된 일을 누구 탓으로 돌릴 일도 못 되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 제 마음이 다부지지 못한 것을 늘 나무라며 지냈다.

그래도 이 무렵, 한 학과에서 논문집을 내기란 쉽지 않은 때인데도 『國文學論集』을 냈으며, 60년대 말경에는 대학부설로 東洋學研究所를 창립하고 『

『東洋學』을 연간으로 낸 일은 오래도록 잘한 일로 기억되어 남는다.

그러던 중 70년대 초, 간곡한 만류를 외면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은 채 서강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거기서 정년을 맞았다. 이런 어수선한 일들은 이 자리에 들고나올 만한 일이 아닌데도 굳이 들춰 본 것은 내 공부가 걸은 길도 이런 배경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잘 설계된 대로 연구가 차례로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내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그것은 60년대에 발표된 몇 편의 논문만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논문은 『石靜李承旭先生回甲紀念論叢』(1991)의 '주요논저목록'을 참조). 그래도 큰 가닥은 잡힌 상태에서 성화에 밀려 쓰게 된 이 때의 논문 가운데 비교적 주목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1963년의 「疑問添辭攷」와 1969년의 「主語의 統辭에 관한 고찰」이 있다.

「疑問添辭攷」는 중세국어론을 공시적으로 분석하여 거기서 析出되는 의문첨사의 형태론적인 대립과 분포자질을 기술하는 한편 그것들이 의문 구성의 통사적 자질과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관계를 찾아낸 논문이다. 이것은 결국 국어문법에서 의문범주의 본질이 어떠한 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객관화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중세 의문법 체계의 대립자질이 되는 형태표지는 '-니다'와 '-가/고'의 두 계열로 되어 있고, 이 두 계열의 대립에 작용하는 통사의미의 표지는 주어의 人稱條件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니다系'는 주어가 2인칭인 의문, 즉 直接疑問을 이루는 형태표지이고, '-가/고系'는 그밖의 의문, 즉 間接疑問을 이루는 형태표지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그것들이 의문구문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펼쳐 보였던 것인데, 그때로 하면 이것은 새로운 사실의 발굴로 치부되며, 체계논리 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보다 한 층위 아래에 있는 '-가'와 '-고'를 대립항의 형태표지로 보지 못한 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들어낸 것이었고,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진다.

「主語의 統辭에 관한 고찰」은 국어의 기본문형에서 주어는 과연 필수성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국어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主語省

略文이니 無主語文이니 하는 것들의 실체를 국어의 고유한 특질론으로 정립하려 했다.

국어의 핵문형은 전형적인 ‘주어—서술어’ 구문이 아니라, 서술어 자리의 동사가 모든 구성 요소를 통괄하는 敘述語文이며, 따라서 주어는 서술에 관계하는 부속적인 구성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국어의 구문상 주 성분은 서술어뿐이다. 그리하여 주어생략문이니 무주어문이니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구문이 국어구문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 된다. 여기서 지나는 여담이지만, 이 글을 쓴 훨씬 뒤에야 테니에르(Lucien Ténier)가 그가 창시한 依存關係文法에서 명쾌한 논리로 풀고 있는 분석이론을 알았다. 테니에르는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를 1959년에 출판하고, 1966년에는 재판권을 내고 있는데, 언젠지 내가 입수한 것은 재판본이었고, 그것은 이 논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만약 그것을 미리 보고 그의 분석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 문제를 생각했다더라면 한 차원 높은 기초에서 조금은 더 명쾌하고 견실한 작업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이론은 가령 ‘말이 달린다’에서, 이 문장은 몇 개의 요소로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이 문장에 3개 요소를 상정하는데, ‘말이’와 ‘달린다’는 물론이고, 그밖에 또 하나, 이 두 요소를 맺는 ‘연결’(connexion)이라는 요소를 둔다. 이 연결에 의해 결합한 두 요소를 核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생기면서 계층을 이루어 종속형식을 통괄하는 交點을 만들어내며, 그 교점은 동사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국어와 같이 동사가 문말에서 통괄하는 언어를 求心的 언어라고 하였다. 이처럼 ‘주어의 통사에 대한 고찰’에서 드러낸 내 생각과 그 발상이나 전개가 꼭 같지는 않지만 교점이론이나 동사가 교점이 되는 지배와 종속의 결합논리는 같은 맥락이다.

IV.

70년대 초에 쓴 한, 두 편의 글까지 굵어모은 몇 편의 논문과 이것저것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가려 다듬은 글, 몇 편을 합한 9편의 논문을 1973년에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一潮閣)으로 엮어 책으로 냈다. 이 책이 얼마나 알차고 잘 짜여졌느냐는 둘째치고, 우선 부피만으로도 한 해에 한 편 꼴이 못 된다. 한 편씩만 썼더라도 어렵하여 10수 편은 족히 되었을 일이다.

이 책은 I. 名詞形態論, II. 動詞形態論, III. 文法史의 자료와 근대국어 문법의 편제로 되었으나, 제대로 체계에 맞추어 쓴 단행본은 아니다. 각 편마다 쓴 시기나 생각의 기반이 다를 수도 있어서 전편을 꿰뚫는 논지가 무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기호는 체계이고, 체계는 능률과 변별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대립의 상관관계로 짜여져 있다는 시각을 고집했다. 그리고 문법은 이들 관계에 관여하는 규칙들의 집합이고, 그 체계는 능률과 변별이라는 두 가지 욕구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는 체계의 원리를 동력원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文法史에 다가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실 기술에 그치지 않았으며, 사실과 사실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 했다.

나는 격의 본질을 서술용언이 의미 구성에 반드시 관여적인 체언항에다가 배당하는 서술용언과의 관계 개념으로 보았다. 용언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반드시 동작의 공간적 지향성을 한정하는 명사항을 요구하는데 그 때 지향성을 구분하는 공간적 관계 개념이 곧 격의 변별자질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外的 指向性, 內的 指向性 그리고 經過的 滯留性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들 간의 상관성을 가리는 한편 그것으로 엮어지는 대립체계를 격체계로 보는 입장이었다. 우리는 한 문장에서 같은 명사항의 격표지가 바뀌더라도 문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보는데, 이 모순의 현상도 이 지향성에 말미암은 문제로 이해했다. 지향성이 같은 계열에 드는 격들 사이에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근접성이 긴밀하여 어느 한계까지는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사형태론의 「국어 敬語法的 體系와 變遷」에서 체계의 본질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경어법에 종사하는 형태소는 {-시-}, {-습-}, {-이-}로 알고 있으나, 나는 이들과 함께 이례적인 또 하나의 형태소 {-a-}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로는 엉뚱한 제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실마리는 체계의 원리였으며, 문법은 곧 체계이고 체계는 변별을 극대화하는 대립의 틀이라는 명제가 곧 그것이다. 조금은 구차하더라도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본다.

국어의 경어법의 대립관계를 보건대, 결코 '존대와 겸양'이라던가 '존대와 공손' 그리고 '겸양과 공손' 따위의 대립이 직접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일견 외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형태만을 볼 때는 <{-시-} : {-습-} : {-이-}>와 같은 대립이 구성되는 듯도 하지만, 이들의 素性(意義)을 이루는 내용으로 볼 때는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없는 일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이들 대립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공통의 기반-공통분모와도 같은 것을 가진 대립의 關係項으로 되는 것이냐에 귀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평범한 상식적인 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 데 불과하다. 즉 형태적으로는 無徵表의 項으로 나타나며, 소성의 면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로 기술되는 자질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共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을 형태상으로 볼 때, 물론 아무 형태도 별도로 가지지 않은 구성을 이루며, 이로써 有徵表項과 대립을 이루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것을 {-a-}형태소로 규정하고 이것이 나타내는 대우관계를 '平待'로 보는 데 주저치 않는다.

이렇게 해서 경어법의 대립체계가 {-a-} : {-a-}, {-a-} : {-시-}, {-a-} : {-습-}, {-a-} : {-이-}가 되고, 그 공통기반으로 {-a-}가 깔린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a-}가 음성형식이 없는 형태소라는 데 있고, 이것은 형태소 정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일이 된다. 나는 언어에는 의미는 있되 그것을 나타내는 음성이 따로 없는 일이 있다는 문제를 환기시켰고, 이것을 푸는 열쇠로 이른바 零의 형태소 개념을 추상적인 실체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태 범주로 상정했다. 여기서 임의로 {-a-}형태소라고 한 것은 곧 이 零의 범주로 실

현한 형태소라는 뜻이고, 이것은 뒤에 안 사실이지만, Nida가 영어의 'sheep'처럼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게 실현하는 현상을 푸는 가운데서 영형태소(zero morpheme), 변이형태적 영(allomorphic zero) 또는 영변이형태(zero allomorph)의 범주 개념을 설정한 것과 같은 것이다.(Eugene A. Nida : Morphology. 1957, p.46 참고)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형태 범주를 상정함에 있어 예상되는 부작용도 없지 않다. 경어법의 '平待'만을 형태소적 영, 즉 영형태소로 규정하면 되는 일이라면 몰라도, 가령 시제에 있어 형용사나 계사서술어의 경우 현재 인식의 형태 범주가 없는 것도 그럴 것이고, 그 밖의 여러 곳에 뜻이 다른 영형태소를 양산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고 체계논리를 기조로 하는 문법에서 {-a}의 존재이유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다. 이 형태소 범주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다만 그 적용 범위는 일정한 기준으로 가능한 한 절제해야 한다.

V.

1996년에 정년을 맞아 『국어문법체계의 사적 연구(1973)』 이후의 논문을 모아 『國語形態史 研究(1996)』를 太學社에서 냈다. 그것은 I. 形態史, II. 名詞形態史, III. 動詞形態史, IV. 餘稿의 4부로 나누어 18편의 논문을 골라 엮은 것이다. 여기서도 변화는 구조론적인 체계의 원리로 굽어봐야 하고,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간의 平衡과 牽制를 도모하려는 內向의 힘과 체계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능력과 효용을 끌어올리려는 外向의 힘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관계논리를 찾아 밝히는 일이라 하여 모든 논문을 이런 생각으로 썼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강한 집념을 가지고 주목한 과제는 뭐니뭐니 해도 '文法化' 문제다. 사실 문법화는 '形態史'와 온전한 동의어 못지 않은 표리의 관계라는 데 주목해 왔다.

형태소는 단어와 달라서 생길 때부터 형태소 본연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 흔히 형태소는 단어가 어떤 이유로 변하여 轉移되었

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우리는 語源語로부터 문법화한 형태소라 한다. 그러므로 문법화란 어휘성에서 문법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대략 「어휘적 단어>문법적 단어>접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테면 한 어휘적 의미를 갖춘 단어가 문법적 성질을 가진 단어로 변하고, 그것이 다시 독립성을 완전히 잃은 접사로 변하여 문법성만 남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여 문법성은 형성된다.

이런 유형의 문법화를 확인할 대상은 명사형태사나 동사형태사 할 것 없이 넓은 영역에 걸쳐 많이 있다. 후치사는 물론이고 일부의 격접미사며 형식 명사류까지도 문법화의 연속변이의 어느 단계에 있는 것들이고, 이른바 보조용언의 특수성도 이 문법화의 어떤 단계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나는 『國語形態史研究』(1996)에서 문법화가 일어났을 모든 대상을 다룰 때는 원칙적으로 어원적인 어휘성이 탈색되고 추상적인 문법성만 남는 과정의 단계를 포착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거니와, 특히 '內向系 격형태소의 分化-對·造·處格的 再構에 대한 試考'는 국어의 일부 격형태소들의 同源性을 검색하여 어원형을 재구하고 그 분화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었으나, 전체의 논지를 이끈 것은 역시 문법화의 원리였다.

국어의 내향계 격은 處格과 對格 그리고 造格이고, 이들의 분화는 내향계 안에서 歸着性, 滯留性, 經過性을 지표로 하여 나뉜 分枝다. 이와 같은 계열 구성은 실제의 사실로 검증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은 이들을 형태론적인 同源性으로 묶는 일이다. 사실 이 논문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의 논의였다. 우리는 국어의 대격과 조격에서 핵심적인 형태 요소가 무어냐고 할 때, 대개는 {리}이라고 하지 어떤 모음 요소라고 하는 일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격은 그 사실만으로도 동원성을 상정할 교두보는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처격은 얼른 보기에 그렇지가 않다. 이들과 이어질 공통의 고리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향찰문자 자료 가운데는 처격이 배당될 자리에 '良'(良中, 良衣)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良'을 어떤 음으로 읽어야 할지 그 해독은 물론이고, 그 자리의 음이 '애, 에...'로 상정되는데, 하필이면 '良'을 갖다 쓴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난해한 대목이다. 나는 이

에 대하여 '良'의 원음에는 어떤 상태로든 'ㄹ'음이 내재한다는 전제에서, 굳이 '良'을 고집한 이면에는 처격의 어원적인 형태에 대한 잠재적 관념형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내향계 격형태의 어원형은 {ㄹ}을 주요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격에도 {ㄹ}이 기대되는 터에 '良'의 등장은 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정황의 분포 조건들을 분석하여 '良'을 차자한 저의를 형태사의 문제로 읽어냈다.

언어의 변화는 일시에 일어나지 않으며, 비록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경우든 점진적으로 변한다. 그것은 근원 영역의 초기 개념이 목표 영역의 후기 개념으로 이행하는 사이에는 개념의 중복 현상이 빚어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전 단계에서 후속 단계로 넘어가는 경계가 있는지 선명치가 않고 겹치는 이 중간 단계에는 두 단계의 의미 기능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문법화의 특징이다. 이런 겹치는 단계가 있음으로써 한 언어 형태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한 의미가 여러 형태로 표시되기도 하여 의미의 모호성을 빚기도 한다. 그리하여 문법화는 [어원어 단계]중복 단계>문법소 단계로 진행하며, 그것을 형태 변화로 보면, [완전한 형태]완전한 형태/축소된 형태>축소된 형태와 같이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내향계 격의 '완전한 형태'를 {ㄹ}로 상정하였고, 처격의 경우 그 {ㄹ}이 '축소된 형태' {애/에}가 되는데, 향찰문자시기의 '良'(良中/良衣)은 바로 '완전한 형태/축소된 형태'와 같이 두 형태가 공존하는 중복단계의 특징이 잘 드러난 형태사의 한 단면이라고 하였다.

이상 너스레를 떨며 장황한 말을 늘어놓았으나, 어느 만큼 말은 일에 충실했는지 걱정이 된다. 이 가운데는 이미 생명력을 잃었거나 묻혀서 빛이 바랜 것도 있고, 희미하나마 명맥만은 남아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염치없이 되뇌어 본 것은 그저 지나가는 말이라니 접어두기 바란다.